

# 화순군, 느티나무 등 보호수 851본 생육 점검



화순군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느티나무 등 보호수 851본(306곳)의 생육 상태, 주변 현황,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화순군은 보호수의 활력도, 훼손도, 병해충 피해, 나무손상, 나무

활력도·훼손도·병해충피해·손상 등 진행

외과수술·주변 정비 등 적절한 보호조치 방침

의 뿌리 생육에 장애가 되는 콘크리트 시공과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생육 상태가 불량한 보호수에 외과수술, 주변 정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폭우와 태풍에 대비해 고사지 낙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정 등 안전 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상반기 2번, 하반기 1번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보호수 17개소 123본에 대해 외과

수술, 수관 조절, 영양공급, 고사지와 쇠약지 전정,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제거 등을 진행했다. 하반기 정비 사업은 10월쯤에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화순은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추억이 담긴 보호수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 금남동, 지역개발사업 총괄 설명회 개최

6개 부서 40여명 참석

나주시 금남동은 2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통장단 월례회의를 통해 관내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별 총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취소·연기된 사업별 주민설명회를 대체하기 위한 자리로 금남동 통장협의회(회장 허현숙), 시청 도시재생과, 역사관광과 등 6개부서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동은 특히 민·관 협업의 중심인 통장단과의 소통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민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현재 금남동 지역에서는 △나주목 관아 향교 복원정비 △나주읍성권·죽림동 도시재생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 △전통한옥마을 지원 △금성산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및 공원조성 등 원도심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2800여억원 규모, 18건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허현숙 통장협의회장은 “우리지역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담당부서의 세세한 설명을 통해 원도심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기회가 됐다”며 “이제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변동진 금남동장은 “금남동은 천년 목사고를 나주 원도심의 심장이자 호남의 중심 나주의 핵심 거점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앞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관 소통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 곡성토란, 상표 사용 독점 권리 인정

지자체 지리적표시 인증 이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곡성군이 지역특화품목 ‘곡성토란’이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곡성군은 전국 최초 토란 품목 지리적표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서 곡성토란 브랜드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는 단체 표장을 말한다. 지리적표시는 해당 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에서 관할하는 반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에서 관할하며 해당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곡성군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전국 약 40%, 생산량 기준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토란 주산지이다. 알이 굵고 식감이 좋아 품질 역시 인정 받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토란이 곡성토란으로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곡성토란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란에는 ‘곡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곡성군은 유통질서 확립과 브랜드



곡성토란  
GOKSEONG TARO

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곡성토란의 브랜드 가치 상승, 관련 업체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 장성군, 장성호 ‘수변길마켓’ 새단장

활성화 토론회…농업인 소득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장성군이 장성호 ‘수변길마켓’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수변길마켓 운영능력과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개장을 앞둔 수변길마켓 운영 활성화 방안과 장성호 ‘상품권교환제’ 도입에 따른 운영자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성호 수변길마켓은 주말 평균 1만명이 찾으며 최근 광주·전남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장성호에 설치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다.

장성호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2019년부터 군이 운영하고 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휴장 조치했다. 그동안 군은 황룡면에 있던 판매장을 옮겨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쾌적하게 단장해 오는 8월 1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기만 운영자 대표는 “장성의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를 파는 세일즈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수변길마켓은 고품질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장성의 대표적인 직거래장터”라며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본부

## 담양군, 상수도 관말지역 주기적 배수 작업 추진

흐린물 주 원인 관말지역 배수 작업으로 안전한 수돗물 지키기

담양군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담양군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타 지자체 등에서 흐린물로 인한 주민 불편 시례를 사전 예방코자 관말지역 위주의 주기적인 배수(물빼기)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 관말지역은 상수도 공급체계상 수돗물이 관속에 정체하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인하여 잔류염

소가 낮아지고 흐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군에서는 과학적인 분석과 관련 민원발생 사례 등을 토대로 흐린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담양읍 남산리 2구 마을회관 주변 등 35개 지점을 선정했으며 이따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점을 중심으로 매월 주기적인 배

수 작업과 동시에 잔류염소 및 탁도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한편, 담양군은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지정약수터)에 대해서도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물순환사업소 홈페이지에 매월 공지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 평범한 속 일상 속 남다른 여행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